

목어

행복을 향하여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신 부처님 전에 귀의합니다. 서방정토 멀다해도 한 마음에 깨달으면 그 자리가 정토세계요, 권력이나 부자라고 거들먹거리지만 거짓으로 행세하고 남을 속이고 업신여기면 전생에 지은 작은 복덕마저 다 깎아 다시 거지되어 천대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께는 <수타니파타>를 통해 우리에겐 간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거떠한 경우라도 남을 속이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 원인과 분노로부터 벗어나 남을 해치지 말라. 어미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식을 지키듯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하여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닦아라. 위거나 아래거나 모든 생명에게 배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적의를 품지 말고, 선행을 갈고 닦아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생각해보십시오. 사람들은 힘들지 않고 행운과 복이 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오지 않으면 운이 없다 하고, 주어지지 않는다고 남을 원망합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빼앗아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스스로 진실한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종교는 행복해지기 위해 믿는 마음의 행위입니다. 성인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 행동하며 마음을 성자처럼 가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내가 서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직감적 감각에 의해 바르게 인식하고 행동하십시오. 행복은 바로 그 시점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고 일정한 주인이 없습니다. 행복은 허공에도 산에도 들에도 바다에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고 내 영혼이 머무는 곳, 내가 진실과 더불어 노력하는 그곳에서 찾아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행동하는 자의 눈에만 보이고 나타납니다.

행복은 성불의 길입니다. 최상의 행복은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으며 새 마음을 새롭게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미소를 떠올려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서원하십시오. 복덕과 지혜를 구족한 부처님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고 진심으로 발원하십시오.

법산(동국대 정각원장·본지는설위원)

각 종단 합심 비행 승려 단속 승단 권위 회복

스님 목사 등 수행자와 성직자에 대한 자정을 촉구하는 각 종교 신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랍 20일 재가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각 교단 개혁을 위한 종교NGO 협력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종교 밖에서도 '종교 비판'이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해 9월과 10월 계간 <당대비평>과 무크지 <인물과 사상>은 '권력으로서의 한국종교'를 분석하고 '종교는 영원한 성역인가'라는 물음을 던져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교단의 움직임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불교계의 경우, 스님들의 비리가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는 등 불교 교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어 연합감찰제도의 도입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99년 초 종단협의회에서 연합감찰위원회 설치를 논의했으나, 이후 '실현성이 적다'는 이유로 사실상 폐기됐다. 종단협의회는 당시 회장이었던 고산

연합감찰제 '재론'

스님의 제안으로 연합감찰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다. 연합감찰위원회 설치 규정과 각 종단 총무원장이 서명하는 협약서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이후 조계종 사태 등으로 고산스님이 물러나는 등의 일을 겪으며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당시 초안한 협약서에는 연합감찰위원회 설치 목적을 '비행승려를 각 종단 연합으로 단속하고 규제함으로써 승단의 권위와 질서를 재정립한다'

성직자 비리 언론보도 잇달아 "종단별 호법부 활성화 전제조건"

고 밝혔다. 협약서에서는 또 위원회의 임무를 △개인사취 목적의 탁발행위 단속 △비행승려(도박, 음주난행, 승단질서 파괴 등) 단속 △후세무민하여 승단 또는 승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이버 행위 단속 등 승가의 권위 실추를 막는 기본적인 사항을 담았다. 또 소속 종단으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승려의 타종단에서 승적 취득 및 사찰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각 종단의 호법업무 활성화를 연합감

찰위원회 설치와 기동의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몇 종단을 빼고는 부서는 있으나, 사실상 업무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조계종만 해도 상입감찰과 과장, 주임 등 8명의 인원이 있으나, 역부족이다.

조계종 호법부는 최근 한 스님이 쓴 책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문제의 책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동떨어진 이적을 강조하고 있어 불자들을 현혹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문제의 책을 쓴 스님이 조계종 승려가 아니어서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교계인론을 통해 문제의 책에 현혹되지 말라고 불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전달하기로 결정이었다. 연합감찰제를 시행할 경우, 조계종 호법부에서 해당 종단에 통보해 제재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종단협의회 사무국장 법현스님은 "연합감찰제 시행을 위해서는 각 종단 호법부서의 활성화 등의 과제가 있으나, 이 제도의 시행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종단협의회에서 연합감찰위원회 구성안을 완전히 폐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정대스님 "선암사 주지 발령 않겠다"

태고종 새 총무원장 종연스님에 밝혀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오른쪽)과 태고종 총무원장 종연스님이 환담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대스님은 "조계종에서 선암사주지를 발령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대표적인 조계-태고 분규 사찰인 순천 선암사 문제를 인기 내에 매듭지으려는 의사를 보여 주목된다.

정대스님은 구랍 26일 총무원장에서 태고종 새 총무원장에 당선된 종연스님이 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선암사에 조계종 분사주지 발령을 내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써주라고 사회부장 양산스님에게 구두로 지시하며, 태고종에 완전히 소유권을 넘겨 분규를 종

식시키자는 것이 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대스님은 이어 "이제는 스님들이 싸우면 모두 공멸하는 시대에기에, 원래 같은 뿌리를 가진 두 종단이 화합해 한국불교를 발전시키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종연스님은 "이제는 조계종이 태고종을 도와줘야 할 때"라면서 내년도 태고종 총무원 청사 이전 불사(강남 불교사 1500명 부지 이용)에 조계종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대스님의 발언에 대해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두 종단이 화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교구본사의 포기 문제는 신중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선암사는 50년대 조계-태고 두 종단 간 분규로 법적인 소유권은 조계종에 있으나, 점유는 태고종이 하고 있으며, 관리권은 순천시당에게 있다. 97년에는 조계종에서 주지로 발령받은 모스님이 접수 시도하다 이를 막는 태고종 스님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정대스님은 조계종에서 주지로 발령받은 스님이 여전히 선암사 접수에 관심이 많은 것과 관련, "요즘은 분사주지들이 총무원장 보다 높은 것 같다. 그 스님이 자주 신경을 곤두서게 한다"고 말해 선암사와 관련해 통제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태고종에서 총림으로 지정한 선암사는 구랍 15일 사찰운영위원회를 열어 24대 주지로 지허스님을 선출했다.

두 총무원장 스님은 또 앞으로 선거철이 다가오면 협력해서 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면서, 선거가 끝나도 집권당의 공약이 실현되도록 힘을 모으자고 의견을 모았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새 아침칼럼

윤구병
변산공동체학교 교장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까

밥상머리는 나눔과 섬김의 자리입니다. 제 몸 바쳐 남 살리는 자리이지요. 좁쌀 하나 뿌려 가꾸면 수천 알의 좁쌀이 됩니다. 그러나 그 좁쌀이 온 세상을 채우지는 않습니다. 어미 좁쌀의 소망은 대가 끊기지 않고 새끼 좁쌀이 살아남는 거지요. 한 알만 제대로 썩어 대를 이을 수 있다면 나머지는 다 나누어줍니다. 나누어 먹여 다른 생명체들을 살립니다. 이것이 좁쌀의 섬김입니다. 우리 밥상머리에 오르는 밥, 반찬, 어느 것 하나 살보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제 몸을 바쳐 우리를 살립니다. 몸으로 나누고 몸으로 섬긴다는 게 이렇게 숙연합니다.

저는 처음에 변산에 와서 '음력 오월 단오날까지는 염소가 먹는 건 어떤 것이든지 사람이 먹어도 몸에 해롭지 않다'는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말을 공공연히 되새기면서, 염소가 뜯는 풀을 눈여겨보는 험뎨고 굶주린 아이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나는 집 사람들은 대대로 굶어 입맛이 길들여져서 아무 풀이나 입에 대지 않습니다. 밥상이 휘게 갖가지 산해진미를 차려 먹는다면 저 나뭇잎으로 다 죽는 음식이지요.

짜지게 가난한 사람들의 밥상에 오른 음식을 눈여겨본 적이 있나요? 한해물 두고 지켜본 적이 있나요? 그 밥상에 조밥, 보리밥, 가끔 가다 멸절에 하얀 이밥이 놓이고 겨울에서 이른 봄까지는 동치미나 깍두기, 배추김치가 놓이는 일이 있으나 놀랄게도 반찬 가운데 반 이상은 사람이 써뿌려 가꾼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나는 것들입니다. 여섯 해째 변산에 살면서 해가 갈수록 더 절실하게 저도 우리 식구들도 사람이 짓는 농사보다 하늘님이 자연이라는 논밭에 가꾸시는 농사를 먼저 배워야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땅을 살린다는 게 내 내 밥만 살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산도 살리고 들도 살리고 개펄도 살려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이고, 사람이 이루어낸 제도과 법이든 싸움이고, 빗나간 가치관과 맞서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면 살아 있는 물은 우리에게 맞난 우렁이, 미꾸라지, 민물새우 등을 가졌없이 길러서 밥상머리에 올려줄 것이고, 살

아 있는 사넛물과 등방은 애써 기르지 않더라도 피라미, 붕어, 잉어, 가물치, 메기 등을 푸지게 먹여 줄 것이고, 살아있는 들판은 온갖 약초와 나물을 거저 줄 것이고, 살아있는 개펄은 그야말로 온갖 산해진미를 마련해 줄 겁니다.

살림의 바탕에 먹을 것이 으뜸인데, 그리고 '살림'이라는 말이 '죽임'에 맞서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뜻을 지닌 말인데, 다른 생명체를 살리는 일에는 눈앞만큼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찌 내 몸 살림만 공리를 낼 수 있겠어요? 살아있는 자연이 거저 주는 단백질 보습원이 점점 줄어들면서 공장에서 갖가지 끔찍한 독약 성분이 든 사료를 먹여 키우는 닭, 돼지, 소를 먹여서라도 몸보신을 하러 들다 보니

제 명예 죽지 못하기 일쑤지요. 농촌이나 어촌에 남아 땅 살리는 일에 앞장설 젊은이들을 죄다 감옥같은 학교나 사무실이나 공장에 가두어 혹사시키다 보니, 늙은이를 이 제조제, 농약, 화학비료로 땅을 죽이는 농사를 지을 수 밖에 없어 논밭에서도 들에

서도 안심하고 거두어 먹을 풀이나 곡식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물으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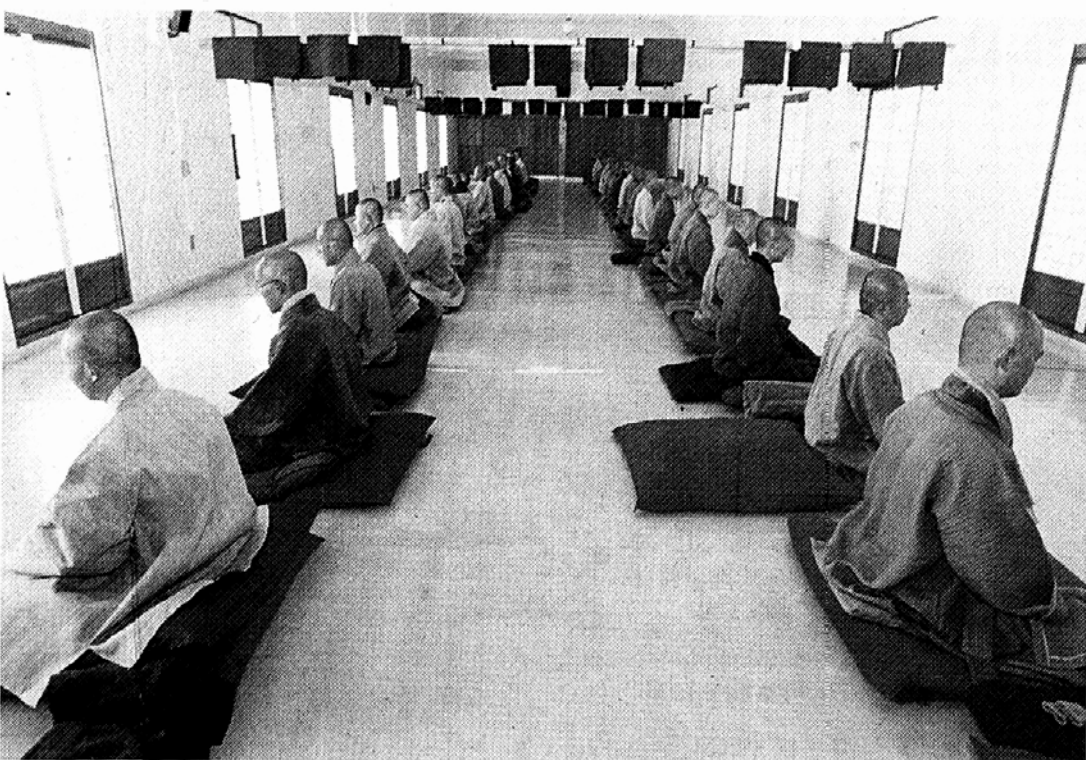
참 답답하고 미안한 말이지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쉬우면서 듣고 싶지 않은 대답이 있습니다. '굶으렴' 중국의 백장선사가 하루 지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살림'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죽임'에만 온통 눈이 팔려있는 끔찍한 중생들 더 죄짓기 전에 굶어죽는 게 더 낫지? 안 그래? 울컥하는 마음이 앞서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그동안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죽임'의 대열 맨 앞에서 날뛰던 전력이 있어서입니다.

먼저 어떻게 먹을까요? 적게 먹고 꼭꼭 씹어 먹읍시다. 경험에서 얻은 몸보신 방법인데 '적게 먹고 꼭꼭 씹어 먹는 것' (少食多嚼)이 건강의 비결이더라고요.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요? 사람이 초식동물이었으므로 풀을 많이 먹어야 하고, 사람이 기른 것을 안심할 수 없으므로 자연에서 나는 것을 많이 먹읍시다. 다만 이것도 제 손으로 뜯거나 잡아야 안심할 수 있겠지요. 모두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명체 살리는 일에는 관심없으면서 내 몸 살릴 공리 어찌 낼 수 있나

佛紀 2545年

謹賀新年



山色은 千秋綠이요
光明은 萬古明을!
산색은 항상 푸르고
광명은 언제나 밝도다

— 宗正스님 新年法語 中에서

佛紀 二五四五年 元旦

大韓佛教曹溪宗

宗正 慧菴性觀
總務院長 月庵正大